

경관부 2015 1차(2014.12.20.)

출제경향과 난이도

① 출제비중 : 전근대사/근현대사 (29:11)

② 출제경향과 난이도 : 생소한 사료와 보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쉬운 것은 굉장히 쉬웠기에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어려웠던 문제 (난이도가 중상이상되었던 것은 따로 표시했음)

6. 선덕여왕의 고사, 7번 발해에 일본이 보낸 문서, 8 장보고활약시기를 묻는 문제는 다소 생소한 사료와 보기로 수험생들을 당황스럽게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근현대사에서 30번 활빈당 34번 의열단 문제는 꽤 까다로웠고 31번 외국과의 조약은 어렵지는 않으나 조금은 당혹스러웠을 듯 하다.

1.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유물이나 유적은?

경제력이나 정치권력이 우세한 부족들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주변의 보다 약한 부족을 통합하거나 정복하고 공납을 요구하였다.

- ① 주먹도끼 ② 빗살무늬토기
- ③ 오산리 선사 유적 ④ 북방식(탁자식) 고인돌

해설 계급발생, 선민사상을 보면 청동기시대이다.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유물로 고인돌이 있다.

- ① 구석기시대 ②③은 신석기시대

답: ④

2. 다음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전하는 어떤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천을 중요시하며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주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 지낸다.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벌로 생구(生口)와 소·말을 부과하는데, 이를 책화라 한다.

- ① 씨족 사회의 전통이 매우 강하였다.
- ② 국왕이 있었으나 자기 부족만 다스렸다.
- ③ 논농사가 발달하여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다.
- ④ 산악 지역에 위치하여 약탈 경제에 의지하였다.

해설

족외혼을 강조하고, 책화풍습, 제천행사로 무천을 하는 나라는 동예이다. 동예는 책화 같은 풍습을 보면 씨족사회 전통이 매우 강했다고 본다.

②동예는 왕이 없이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국가이다. ③ 삼한, ④ 고구려

답: ①

3. 밑줄 친 그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하나 있는데, 수혈이라 한다. 10월에 온 나라에서 크게 모여 수신을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에 모시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의 좌석에 모신다.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 의논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 혼인하는 풍속은 말로써 미리 정하고, 여자의 큰 집 뒤에 작은 집을 짓는데, 이를 서옥이라 한다.

- ①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 ②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조그만 창고가 있었다.
- ③ 돌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고 그 주위에 송백을 심었다.
- ④ 육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지어 마가, 우가, 저가 등이 있었다.

해설

국동대혈, 서옥제를 보면 쉽게 고구려라는 것을 알수 있다. ①②③은 고구려

④부여의 사출도

답: ④

4. 밑줄 친 이 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14년은 이 비가 건립된 지 1600년이 되는 해이다. 비는 부왕의 훈적을 후세에 보이기 위해 세운 것이다. 특히 비의 내용 가운데 신묘년 기록은 왜와 관련된 것으로 한일관계사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 ① 국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다.
- ② 고구려의 건국 신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③ 주변 여러 나라를 정복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 ④ 왕릉을 지키고 관리하는 수묘인의 호구수를 기록하고 있다.

해설

여기서 말하는 비는 장수왕2년에 제작된 광개토대왕릉비이다.

①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비석은 중원고구려비(충주)이다.

답: ①

5. 다음에서 제시한 자료에 해당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동대장군인 백제 사마왕은 62세가 되는 계묘년 5월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모시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 ① 서울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다.
- ② 효성이 지극하고 우애가 있어서 당시에 해동증자라고 불리었다.
- ③ 양나라에 조공하여 외교 관계를 강화하였다.
- ④ 마라난타를 맞이하여 궁궐 안으로 모셔 예우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해설

제시문은 백제 무령왕릉의 지석 내용이다.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외교관계를 강화하였고, 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 백제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① 성왕, ②의자왕 ④침류왕

답: ③

6.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3색의 모란꽃 그림과 그 씨 3되를 보내왔다. 그는 꽃 그림을 보고 “이 꽃은 절대로 향기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씨를 뜰에 심어 그 꽃이 피어 떨어지기를 기다리니 과연 그 말과 같았다.

① 신라의 최초의 여왕이다.

② 침성대를 건립하여 천체를 관측하였다.

③ 자장의 요청으로 황룡사 9층탑을 세웠다.

④ 중국의 의관을 착용하고 아홉(牙笏)을 갖게 하였다.

해설

제시문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선덕여왕과 관련된 [지기삼사[知機三事]:미리 알아 낸 세 가지 일]편에 나오는 모란꽃 일화이다. 선덕여왕은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 침성대를 건립하였고 자장의 요청으로 황룡사 9층탑을 세웠다.

④ 진덕여왕때

● 설명 고사를 모르더라도, 진덕여왕때 중국의 의관을 착용하고 아홉을 갖게 하였다고 몰랐다고 해도 선덕여왕의 기본적 내용만 알고 있다면 쉽게 풀수 있었다.

답: ④

7. 다음 자료를 통하여 알수 있는 시대의 역사적 상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금 보내온 국서(國書)를 살펴보니 부왕(父王)의 도를 갑자기 바꾸어 날짜 아래에 관품(官品)을 쓰지 않았고, 글 끝에 천손(天孫)이라는 참람된 칭호를 쓰니 법도에 어긋납니다. 왕의 본래의 뜻이 어찌 이러하겠습니까. (중략) 고씨의 시대에 병난이 그치지 않아 조정의 위엄을 빌려 저들이 형제를 칭하였습니다. 지금 대씨는 일없이 고의로 망령되어 사위와 장인을 칭하였으니 법례를 잃은 것입니다.

① 북만주일대를 차지하고 산동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②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동경으로 옮겨 중흥을 꾀하였다.

③ 5경 15부 62주의 행정제도가 완비되었다.

④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칭해졌다.

해설

제시문은 [속일본기]에 나오는 일본이 발해문왕에게 보내는 외교문서이다. 발해는 건국 초기부터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특히 문왕때 활발하였다. 당시 일본은 발해와 형제의 관계로 인식하였는데 발해측에서 천손(天孫)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문왕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동경으로 옮겨 중흥을 꾀하였다.

[발해의 수도 변화과정]

천도

원인

제1차 중경 천도(746~756)	문왕	늘어난 영토의 효율적인 통치와 국력의 강화
제2차 상경 천도(756)		당의 안록산의 난(755), 지배체제의 정비
제3차 동경 천도(758~786)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
제4차 상경 천도(793)	성왕	문왕 사후, 왕권 쇄신과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려는 목적

①무왕 ③④는 선왕

☞ 무왕. 문왕이 헛갈린다. 문왕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풀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문왕때 일본과의 교류가 특히 활발했다는 것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난이도 : 상	답: ②
---------	------

8. 밑줄 친 그가 활동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그가 귀국하여 흥덕왕을 뵈고 아뢰기를, “중국의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으니, 청해에 진영을 설치하여 해적이 사람들을 잡아 서쪽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은 그 말에 따라 군사 만명을 주어 해상을 방비하게 하였다.

- ① 산동반도 등주에 발해관이 있었다.
- ② 신라는 패강일대에 수자리를 설치하였다.
- ③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상설교통로가 개설되었다.
- ④ 북진을 설치하고 말갈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해설 제시문은 장보고에 대한 내용이다. 장보고는 신라하대에 활동한 인물로 이때 산동반도 등주에는 발해관이 있었다. ② 신라중대 : 패강에 수자리(군진, 패강진)를 설치한 것은 성덕왕 때로, 발해 무왕의 공격에 따른 당의 요청으로 발해를 공격한 사실과 관련된다.③ 신라도가 개설된 것은 신라 중대이다. ④ 신라중대 : 무열왕 때 말갈과 인접하여 위협이 끊이지 않자 북소경(강릉)을 폐지하고 강원도 삼척 지역에 북진을 설치하였다.	난이도 : 상 답: ①
---	----------------------------

9. 다음의 글을 남긴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신이 본국의 숙위원상보(宿衛院狀報)를 보건대, 지난 건령 4년 7월 중에 신년축하 사절로 간 발해 왕자 대봉예가 글을 올려, 발해가 신라보다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칙지(勅旨)를 엮으려 살펴보니, “국명(國名)의 선후라는 것은 본래 국력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정의 제도로서 서열에 등차가 있는 것이거늘 어찌 성쇠(盛衰)로써 바꾸겠는가. 마땅히 옛 사례대로 할 것이니 이에 널리 선포하여 알리도록 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 ① 동사강목
- ② 발해국지장편
- ③ 계원필경
- ④ 발해고

해설 제시된 사료는 신라 말 발해와 벌어진 쟁장사건을 보여주는데 최치원이 발해 사신을 신라보다 위에 앉히지 않은 일에 대해 당 황제에게 감사하는 글이다. 최치원은 당의 빈공과에 급제, 신라에 돌아와 개혁안(시무10조)을 진성여왕에게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은둔생활 하면서 뛰어난 문장과 저술을 남겼다. 저서로는 [계원필경], [제왕연대력], [토황소격문]등이 있다. ① 동사강목 : 18세기 안경복, ② 발해국지장편(1935), ④ 발해고:18세기 유득공 * 사신 간의 윗자리다툼인 쟁장(爭長)사건(효공왕, 897) : 당에서 발해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건	
---	--

답: ③

10. 밑줄 친 그의 행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 경복(景福) 원년은 진성왕(眞聖王) 6년인데, 아첨하는 소인들이 왕의 겹을 둘러싸고 정권을 농락하니, 기강은 문란해지고 흉년마저 겹쳐 백성들은 유리되고 도적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이에 그는 은근히 반란할 뜻을 품고 무리를 모아 서울 서남의 주현을 공격하니, 가는 곳마다 호응하여 불과 한 달 동안에 군사가 5,000여 명에 이르렀다. 드디어 무진주(武珍州)를 습격하고 자칭 왕이라 하였으나 감히 공공연히 왕이라고는 못하였다.

- ① 전라도 지방의 군사력과 호족세력을 토대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 ② 부석사에 있는 신라 왕의 화상을 칼로 훼손하면서 반신라적 감정을 드러냈다.
- ③ 중국의 오월 및 후당과 통교하는 등 대중국외교에 적극적이었다.
- ④ 신라의 대야성을 점령하고 포석정에서 경애왕을 살해하였다.

해설 사료는 무진주에서 세력을 키워 완산주에 도읍하여 후백제를 건국한 건훤에 대한 이야기이다. 건훤은 중국의 오월 및 후당과 통교하는 등 대중국외교에 적극적이었으며, 신라의 대야성을 점령하고 포석정에서 경애왕을 살해하였다.

②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

난이도 : 중상	답: ②
----------	------

11. 고려시대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된 국왕의 업적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원년) 6월에 제(制)하기를, “임금의 덕은 오직 신하의 보필에 달려 있다. 짐이 새로 정부를 총괄하게 되었으니 잘못된 정사가 있을까 걱정된다. 경관(京官) 5품 이상은 각기 봉사를 올려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논하라.” 하였다. 정광·행선관어사·상주국(正匡·行選官御事·上柱國) 최승로(崔承老)가 상서(上書)하였다(고려사 권92, 최승로전).

- 가. 지방 12개 고을에 외관을 파견하였다.
- 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 다. 호장·부호장 등의 향리직제가 마련되었다.
- 라. 부병제를 대신하여 별무반을 설치하였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

해설 사료는 성종때 최승로가 시무28조를 올리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성종은 12개 고을에 목을 설치하고(12목) 외관을 파견하였고 지방 호족들이 호장 부호장의 항직에 임명되어 지방관을 보좌하는 제도인 향리제가 마련되었다.

나.광종, 라.숙종.

12.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고려시대의 승려와 관련이 깊은 업적은?

- 천태종을 창립하였다.
- 교관검수를 주장하였다.
- 국청사의 창건에 참여하였다.

- ①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 속장경·교장총록을 간행하였다.

- ② 무신정권기 불교 개혁운동을 주도하고 최씨정권의 후원을 받았다.
- ③ 중국 오월 지역에서 유행하던 선종을 수용하였다.
- ④ 광종과 더불어 교종 중심으로 불교계를 개편하였다.

해설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관검수를 주장한 승려는 의천이다. 의천은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 속장경. 교장총록을 간행하였다.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 얼마 후 의천은 고려는 물론, 송과 요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불서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홍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10년에 걸쳐 속장경(=교장) 4,700여 권을 간행하였다. 속장경은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② 지눌, ③ 혜거(선종인 법안종을 수입하였다.) ④ 균여	답: ①
---	-------------

13. 고려전기 대외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이다.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가. 금이 건국된 뒤, 고려가 금을 사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다. 송이 건국하자, 고려가 사신을 보내 외교관계를 맺었다.

라.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9성을 설치하였다.

① 가-나-다-라
② 나-가-다-라

③ 다-나-라-가
④ 라-가-다-나

해설 다(광종) -나(현종) -라(예종) -가(인종)	답: ③
---	-------------

14. (A)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왕을 협박해 강화로 도읍을 옮겼다.

————— < 보 기 > —————

가. 김생(金生), 탄연(坦然) 등과 더불어 신품사현(神品四賢)으로 일컬어졌다.

나. 교정도감(敎定都監)을 폐지하고 정방(政房)을 설치하였다.

다. 야별초(夜別抄)를 조직하였다.

라. 사병집단인 도방(都房)을 처음으로 조직하였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

해설 강화천도를 주도한 것은 최씨정권의 최우이다. 최우는 김생 탄연 등과 더불어 신품4현으로 일컬어지고, 야별초를 조직하였다. 나. 최우가 정방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교정도감을 폐지하지는 않았다. 라. 도방을 처음 조직한 것은 경대승이다. * 신품4현 : 고려시대까지의 서화(書畵)로 유명한 4인의 거장으로, 김생(신라), 유신, 탄연, 최우(고려)를 말한다. ● 신품4현을 몰라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다.	답: ②
---	-------------

15. 쌍성총관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과 다른 것은?

- ① 원이 화주(和州) 지역에 총관부를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파견하였다.

- ② 공민왕대 반원개혁 과정에서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 ③ 명은 고려에 쌍성총관부 지역을 다시 내 놓으라고 통보했다.
- ④ 명의 철령위 설치에 대항하여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해설 명이 쌍성총관부 지역(철령 이북 땅) 요구하며 양국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명이 철령위 설치를 통보하자 최영과 우왕의 주도로 요동정벌이 추진된다. 이때 이성계는 4불가론을 주장하며 요동정벌에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답: ④

16. 다음 중 고려시대 편찬된 서적이 아닌 것은?

- ① 삼국유사(三國遺事)
- ② 제왕운기(帝王韻紀)
- ③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 ④ 본조편년강목(本朝編年綱目)

해설 ① 고려 충렬왕7년 ② 고려 충렬왕13년 ③ 조선 세종 ④ 충숙왕때 초본 완성

*본조편년강목 : 1317년(충숙왕 4) 민지(閔漬)가 저술한 고려왕조에 관한 역사책

답: ③

17. 다음 <보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

< 보기 >

- 충렬왕을 따라 원에 갔다가 공자와 주자의 화상(畫像)을 그려 와 고려에 주자학을 보급하였다.

- ① 안향 ② 이곡
③ 이색 ④ 이제현

해설 충렬왕때 안향이 처음으로 고려에 성리학을 전래하였다.

답: ①

18.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했다고는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인연에 따라 성품을 수양하고 평생을 호방하게 고귀한 이들의 드높은 행동을 좇아 따른다면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

- ①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교관겸수(敎觀兼修)를 제창하였다.
- ②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는 법파신앙에 중점을 두어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 ③ 정혜쌍수(定慧雙修)와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제시하며 수선사 결사를 이끌었다.
- ④ 윤휴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였다.

해설 사료는 무신집권기 지눌의 정혜결사문이다. 지눌은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며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수행방법으로 하는 수선사 결사를 이끌었다.

① 의천의 천태종 ② 요세의 백련결사 ④ 지눌의 제자 혜심

답: ③

19. 조선 왕조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 ① 유교적 민본주의(民本主義)를 국가통치이념으로 삼았다.
- ② 사대교린의 외교정책으로 조선 왕조의 권위를 보장받으려 하였다.
- ③ 고려의 정치, 사회,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불교문화를 창조하였다.
- ④ 양반 사대부를 중심으로 봉건적 통치체제를 구성하였다.

해설 조선은 숭유억불이 기본정책이다.

답: ③

20.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로 서로 통하지 못한다. 고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 이를 매우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글자를 만들어 내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히어 나날이 사용이 편리하도록 함에 있다.

- ① 이전부터 사용했던 발음이 유사한 한자에서 글자의 모양을 따왔다.
- ② 양반 관료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이루어졌다.
- ③ 세종은 이후 모든 서적을 훈민정음을 써서 편찬하도록 했다.
- ④ 한글로 풀이한 『삼강행실도』 등을 간행하여 유교 윤리를 보급하였다.

해설 사료는 훈민정음 서문이다. 세종대왕은 용비어천가(왕실 조상의 덕 찬양), 월인천강지곡(부처님의 덕을 기림) 등을 시작으로 불경, 농서, 윤리서 등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편찬하였다.

- ① 훈민정음은 한자에서 글자의 모양을 따온 것이 아니라 자음의 경우 인간의 발성기관의 모습과 기능을 형상화하는 한 문자이다. ②양반들은 훈민정음을 경시하였고 언문이라 낮추어 불렀다. ③ 한자로 쓰여진 책이 훨씬 더 많다.

답: ④

21. “우리나라의 글은 송이나 원의 글이 아니요, 한·당의 글도 아니며 곧 우리나라의 글이다.”라는 서문을 수록하여 중국과 다른 조선의 독자성을 강조한 책은?

- ① 동문선 ② 동국통감 ③ 동국정운 ④ 동국병감

해설 동문선(성종, 서거정) : 삼국 ~ 조선 초기 뛰어난 시와 산문을 수록한 자주적 한문학 작품이다.

“우리나라의 글은 송이나 원의 글이 아니요, 한·당의 글도 아니며 곧 우리나라의 글이다.”라는 서문이 유명하다.

- ② 동국통감(성종 16) 서거정 등이 왕명을 받고 고대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찬한 사서
③ 동국정운(세종 30) ④ 동국병감(문종) 위만조선기부터 고려 말까지의 전쟁을 계통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전쟁사.

답: ①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해설 가.김홍도의 서당도(18세기.조선후기) 나. 안견의 몽유도원도(15세기.조선전기) 다.강희안의 고사관수도(15세기.조선전기) 라. 정선의 인왕제색도(18세기)	
	답: ②

25. 16세기말 동아시아를 뒤흔든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와 조선의 대외정책에 대한 설명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은?

- ① 중국에서는 여진족이 일어나 명나라를 위협했다.
②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에도막부를 수립하였다.
③ 광해군은 친명정책으로 일관하여 후금을 배척하였다.
④ 명은 후금과의 전쟁을 위해서 조선에 병력 지원을 요청하였다.

해설 광해군은 중립외교정책을 펼쳤는데, 명이 조선에 출병을 요구하자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출병시킨 후,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령. 조명연합군이 후금군에 패배했을 때 강홍립은 후금에 바로 항복을 한다. 이후 명의 원군 요청이 계속되었지만 이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꾀하는 중립외교정책을 견지하였다.	
	답: ③

26. 아래 내용과 관련된 왕의 개혁정치 중에서 옳은 것은?

- 이곳 수원부는 현릉원 자리를 마련한 뒤로부터 관방이 더욱 중화여졌다……현릉원이 있는 곳은 화산이고 이 부는 유천이다. 화 땅을 지키는 사람이 요임금에게 세 가지를 축원한 뜻을 취하여 이 성의 이름을 화성이라고 하였다.
 - 아까 팔달산에서 멀리 바라보니 영부가 웅장하고 여염이 준비하여 참으로 큰 도회지였다. 5, 6년 안에 취락을 이루고 도회지를 형성하는 것이 이렇듯 빨랐으니 내 마음의 기쁨은 진실로 한량없다. 성터의 형세에 대해서는 이제 막 감독하는 당상관에게 하교하였다. 이 성을 쌓는 것은 장차 억만 년의 유구한 대계를 위함에서 비롯되었다.
- ① 군역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②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히 시행하였다.
③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체계를 재정리하였다.
④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해설 [수원화성]내용을 보면 정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정조는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규장각에서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①②③ 영조	답: ④

27.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저술 가운데 주로 형정(刑政) 개혁론을 서술한 책은?

- ① 목민심서 ② 흠휼심서
③ 경세유표 ④ 마과회통

해설 <정약용의 3부작 >

목민심서	지방행정의 개혁에 관한 책(지방관의 도리)
경세유표	중앙정치제도의 개혁방안 제시
흙흙신서	형옥의 개혁방안

정약용의 마과회통은 의서로서 증두법을 최초로 소개하고 있다.

답: ②

28. 조선후기의 사회적 변동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부농층이 향임직에 진출하면서 향촌사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 ② 부계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되었으며 적·서의 차별이 심화되었다.
- ③ 정부는 신분제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납속이나 향임직 매매를 금지하였다.
- ④ 정감록, 토정비결 등 비기·도참에 따른 예언사상이 유행하였다.

해설 납속이나 공명첩, 향임직 매입은 합법적 수단이었다. 족보 매입, 위조, 유생 사칭이 불법적 수단이었다.

답: ③

29. 조선후기 문화와 대표적인 작품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한문학 - 박지원의 양반전
- ② 진경산수화 - 안견의 적벽도
- ③ 서예 - 김정희의 추사체
- ④ 풍속화 - 신윤복의 단오풍정

해설 ② 진경산수화는 18세기 정선이 개척하였다. 정선의 대표작으로는 인왕제색도, 금강전도가 있다. 안견은 15세기 대표적 화가로 대표작은 몽유도원도이다.

답: ②

30. 다음 (A)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국에 흩어져 화적 노릇을 하던 이들은 1900년 전후 충청과 경기,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소백산맥 부근의 전라도 등지에서 (A)을(를) 조직하여 각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서로 연합하기도 했다. (A)은(는) 평소에는 십여 명에서 수십명씩 무리를 지어 때로는 군인으로 때로는 행상인으로 변장하고 다니며 활동했다.

- ① 토지의 균등분배와 쌀 수출에 반대하는 방곡령 실시 등을 요구했다.
- ② 금광개발권과 철도부설권 등 경제이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을 반대했다.
- ③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일부는 의병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 ④ 정부의 탄압을 피해 계(契) 조직이나 기독교 등의 종교조직을 이용하여 활동했다.

해설 제시문은 활빈당에 대한 설명이다. 활빈당은 을미의병때 해산된 농민들, 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과 행상·유민 등으로 구성되어 반침략, 반봉건 활동 전개하였다. 이들은 친일부호, 일본상인을 공격하여 빼앗은 재물의 일부를 빈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을사조약 이후 일본군 탄압으로 거의 소멸되었지만, 잔여세력은 정미의병 등에 흡수되었다. 그들의 주장인 대한사민논설 13조에는 방곡령 실시, 경제이권을 타국에 넘기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난이도 : 상

답: ④

- ① 오도리 케이스케
- ② 미우라 고로
- ③ 이노우에 가오루
- ④ 고무라 주타로

해설 을미사변 직전의 일본공사는 이노우에 가오루였다. 삼국간섭 이후 일본은 육군중장 출신의 미우라 고로를 공사로 교체 파견하고 미우라는 부임한 지 37일 만에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 다케조 공사 (갑신정변때 개화당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자)

난이도 : 상

답: ②

34. 다음 선언문에 입각한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내용으로 맞는 것은?

민중은 우리 혁명의大本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제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제 체도를 개조하여 인류가 인류를 압박하지 않으며, 사회가 사회를 수탈하지 않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조선혁명선언(신채호)>

- ① 1926년 계급타파와 토지평균 등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20개조의 강령을 발표하고 민족협동운동에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 ② 유화현 삼원보에 경학사와 부민단을 세우고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다.
- ③ 독립자금과 국내 정보를 모으기 위해 교통국을 설치하고 연통제와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거류민단체 등을 실시했다.
- ④ 두만강과 압록강 부근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고 때로는 국경을 넘어와 국내진공작전을 펴기도 하였다.

해설 사료는 의열단 강령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다.
 ② 신민회, ③ 대한민국임시정부, ④ 만주에서 활동한 무장독립단체

난이도 : 상

답: ①

35.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 ①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해 일제의 침략과 민족의 독립운동을 정리하였다.
- ②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하였다.
- ③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종과 실학자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 ④ 양명학과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를 정리하여 민족 정신을 세우려고 하였다.

해설 사료는 박은식의 [한국통사]이다. 박은식의 대표저서로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가 있다.
 ② 신채호, ③ 정인보, 안재홍등 ④ 정인보(‘얼’을 강조)

< 박은식(1859-1925) 약사. >

- 1898년 독립 협회 참여
- 1909년 유교 구신론 발표(양명학 중심의 유교개혁 주장)
- 1912년 상하이에서 신규식과 함께 [동제사]조직
- 1915년 이상설, 신규식 등과 신한 청년당 조직
- 1925년 제2대 임시 정부 대통령,국무위원 체제로 고치고 사임, 그해 사망

민족주의 사학자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국가는 형(形)이요, 역사는 신이다.” (민족)혼 강조!

답: ①

36. 다음 중 1930년대의 사회·문화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나운규가 민족의 비애를 담은 영화 ‘아리랑’을 발표하였다.
- ②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 ③ 조선 여성들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근우회가 조직되었다.
- ④ 신분 차별을 폐지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아래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해설

해설 ① 아리랑(1926) ② 베를린 올림픽(1936) ③ 근우회(1927, 신간회의 자매단체) ④ 조선형평사(1923)

*손기정 연도 몰라도 ①③④는 웬만큼 아는 내용이기에 어렵지 않았다.

답: ②

37. 다음 중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문제가 논의된 회담이 아닌 것은?

- ① 포즈담회담 ② 카이로회담
③ 알타회담 ④ 포즈머스회담

해설

해설 포츠머스회담은 러·일 전쟁때 강화조약이 체결된 회담이다.

<광복이전 우리나라 관련 국제회의>		
카이로회담(1943.11)	미, 영, 중	적당한 시기, 적당한 절차 를 거쳐 한국 독립시킬 것을 명시
알타회담(1945.2)	미, 영, 소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 결정(소련의 영향받게 됨) 38도선 분할점령 제의(일본군 무장해체목적)
포츠담회담(1945.7)	미, 영, 소, 중	한국독립 재확인,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답: ④

38. 미군정기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 ①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다.
- ②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해 만들어졌던 반민특위가 와해 해체되었다.
- ③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합작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 ④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 확대는 주로 ‘독립촉성국민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해설

해설 미군정(1945.9~1948.8월 정부수립 전까지), 반민특위는 1949년 이승만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

- ① 남조선국방경비대 (1946) ③ 여운형 암살, 좌우합작위원회 쇠퇴(1947년) ④ 정부수립전까지 이승만의 정치기반

*남조선국방경비대 : 8·15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창설되어 대한민국국군의 모체가 되었던 군사조직

답: ②

39. 다음 사실들을 시간 순으로 가장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하였다.
 나. 미국을 주축으로 16개국이 참여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다.
 다.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국군의 공세에 밀려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라. 서울을 되찾고 평양까지 탈환하였다.

-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③ 나-다-라-가 ④ 나-다-가-라

해설 6.25전쟁의 전개과정

전쟁 반발	북한군 남침(1950.6.25) → 서울 함락(6.28), 한강 인도교 폭파 → UN참전 : 16개국으로 구성(7월) → 미국에 한국군 작전권 양도 → (가) 낙동강까지 후퇴(8월)
전세 역전	(나) 인천상륙작전(1950.9) → (라) 서울 탈환(1950.9.28.) → 38선 돌파(1950.10.1), 평양 점령(1950.10.19) 압록강까지 북진
전쟁 장기화	(다) 중공군(100만 명)의 참전(1950.11) → 흥남 철수(12.5) → 서울 함락(1·4후퇴) → 서울 재탈환(1951.3.14), 전쟁 장기화

답: ②

40. 다음 중 196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 ① 3.15 부정선거 규탄에서 촉발된 시위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귀결되었다.
 ②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③ 유신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이른바 유신체제가 출범하였다.
 ④ 5.16 군사정권에 의해 제2공화국이 막을 내리고 제3공화국이 출범되었다.

해설 유신체제가 출범한 것은 1972년이다.

- ① 이승만 하야(1960.4.26.) ② 한일협약(1965.12) ④ 제3공화국 출범(1963.12)

답: ③